

대회의실 현수막 1×4.8m 설치 순서는 정면 백보드 기준

좌1

버를 짊는 쇠신만이 살길입니다

좌2

국민만을 위해 화합하겠습니다

우1

나부터 처절하게 반성하겠습니다

우2

무한한 책임으로 다시 뛰겠습니다